1. 경제 부문

1.1. 경제 성과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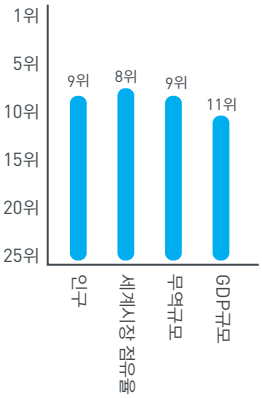
OECD 국가 중 우리 경제를 규모면에서 볼 때 인구 9위, 수출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8위, 무역규모 9위, GDP 규모 11위 등 OECD 10위권 내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GDP는 25위(PPP 기준 23위) 수준이나 빠른 경제성장(GDP 성장률 3위, 잠재성장률 3위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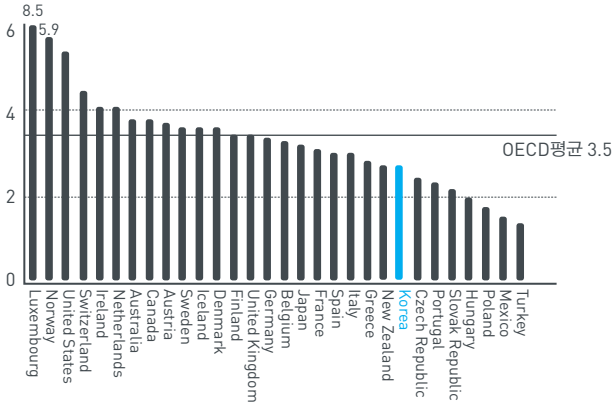
그간 우리 경제는 생산성은 낮았으나 노동 투입량을 늘려 이를 보완해 왔다. 미국을 100으로 전제할 때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46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나 노동투입량은 113으로 미국보다 13% 많다.

그러나 최근 추이는 노동투입량이 연평균 0.6% 감소(2001~2008년간)한 반면, R&D투자,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동 기간 연평균 4.7% 증가(2위)하여 노동투입의 감소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경제규모 순위]



[1인당 GDP(PPP기준)]



1.2. 요소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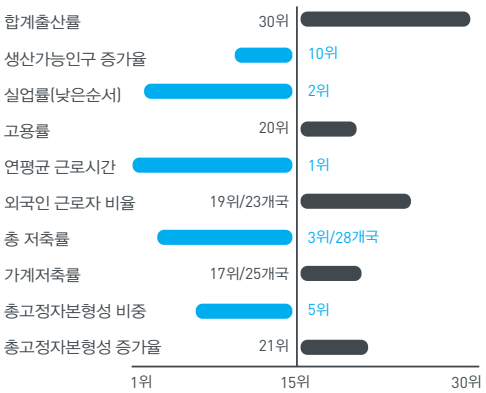
경제성장은 주로 요소 투입에 기인했지만 점차 요소투입의 기여도는 축소

노동투입의 경우 고용률(20위)이 낮아 노동력의 활용은 미흡한 편이나 긴 노동 시간(1위)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10위) 덕분에 노동 투입량은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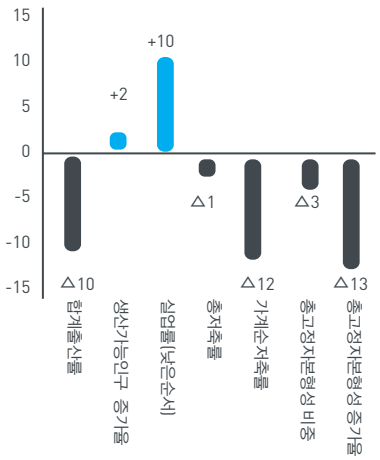
그러나 저출산(합계출산율, 30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17년부터 감소 예상)와 연평균 근로시간 감소('80~'08년 중 우리나라 △21.5%, OECD △1.2%) 등은 노동투입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투입의 경우 현재 GDP대비 투자 비중(5위), 총저축률(3위)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축의 주체인 가계의 순저축률[5위('00년)→18위('08년)]은 순위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요소 투입 지표]



[최근 10년간 순위 변화]



1.3. 기술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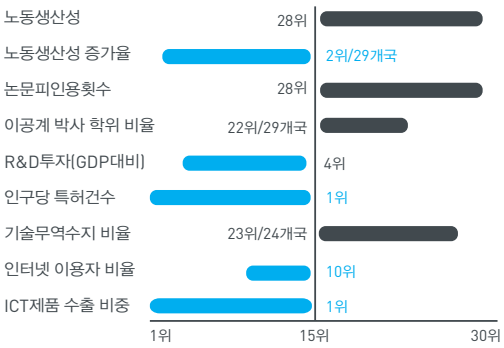
혁신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

노동생산성(국내총생산성/총근로시간, 28위)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수준 자체는 낮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율(2위)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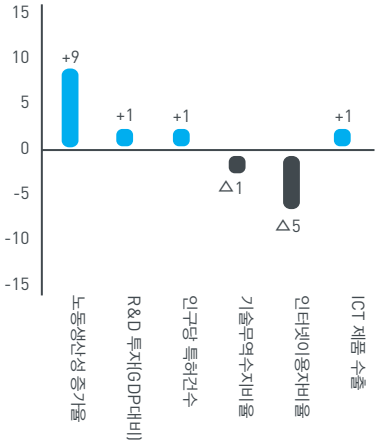
혁신경제로의 전환은 ICT인프라, 높은 R&D투자 등이 이끌고 있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위,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하위 2위,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1위,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 9위 등 ICT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ICT 수출비중(1위)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높은 R&D투자(GDP 대비 R&D 투자비율, 4위), 특허 출원(인구당, R&D 지출 규모당 특허 각각 1위) 등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공계 박사비율(22위), 논문당 피인용 횟수(28위)는 낮고 기술무역수지 [기술무역수지 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 23위]는 적자를 지속하는 등 혁신의 질적인 측면은 미흡한 편이다.

[기술 혁신 지표]



[최근 10년간 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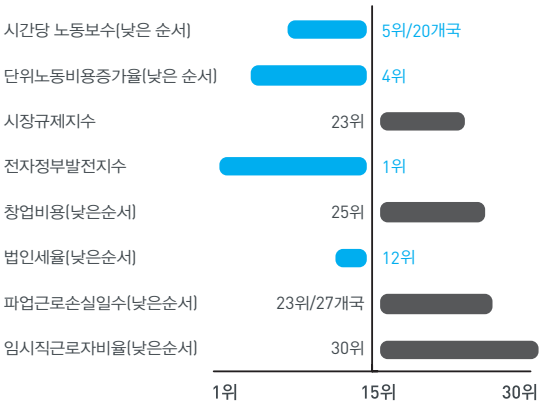
1.4. 기업 환경

낮은 노동비용 등은 기업활동에 긍정적이나 높은 창업 해고 비용, 규제, 대립적 노사문화 등은 불리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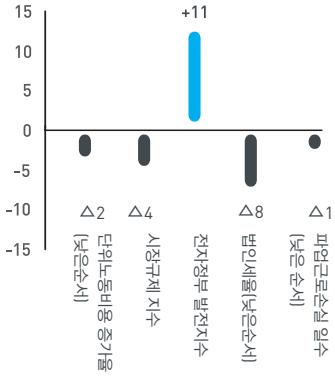
기업의 비용측면에서 시간당 노동 보수는 낮은 수준(하위 5위)을 보이고 있으며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하위 4위)도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하위 2위 /26개국), 조세격차(하위 2위,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 등 기업의 부담 역시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한편 법인세율은 '00년 28%에서 '10년 22%로 낮아졌으나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인하 폭이 적어 동 기간 중 순위는 오히려 하락(하위 4위→하위 12위) 했으며 홍콩(16.5%), 싱가포르(17.0%) 등 아시아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경영 환경과 관련해서는 GDP대비 정부지출비중(하위 1위/29개국), 공무원 수 비중(하위 2위/26개국) 등은 낮지만 정부규제(시장규제 지수 23위)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창업(25위) 및 해고(28위) 관련 비용 부담이 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파업 근로 손실일수(23위/27개국)가 많은 편으로 기업 환경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환경 지표]



[최근 10년간 순위 변화]



*시간당 노동보수, 창업비용, 입시직 금로자비율순위는 변동 없음

1.5. 거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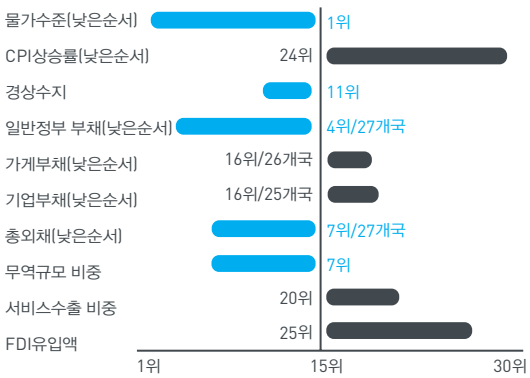
재정, 경상수지, 외환 등 거시환경이 안정되어 있으나 높은 무역의존도와 저조한 FDI 실적 등은 약점으로 지적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반정부 재정수지['05년 GDP대비 3.4%(5위) → '09년 -1.8%(4위)]는 다소 악화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정부부채(하위 4위/27개국)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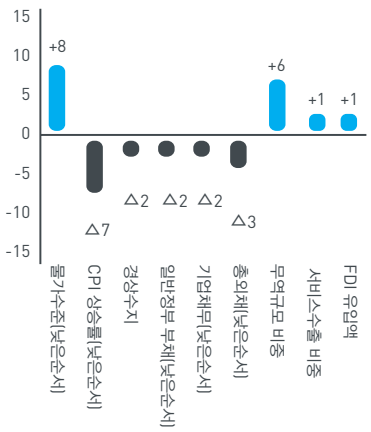
GDP 대비 경상수지도 대체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GDP대비 총 외채 규모(하위 7위/27개국) 및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하위 16위/27개국)은 여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2위)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환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편이다.

무역의존도(GDP대비 무역규모 비중)는 '00년 62.4%(13위)에서 '09년 82.5%(7위)로 크게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FDI 잠재력(14위)은 높지만 실제 FDI 유입액(25위)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투자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거시 환경 지표]



[최근 10년간 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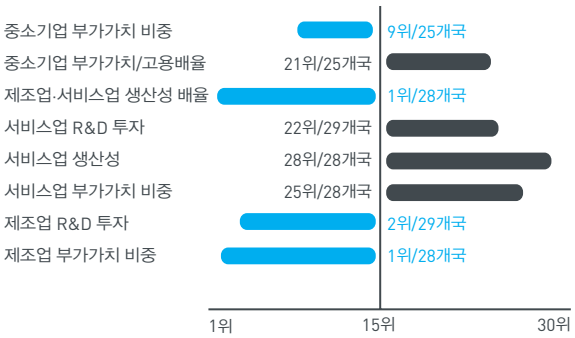
1.6. 산업구조

제조업 경쟁력은 강점이나 산업 양극화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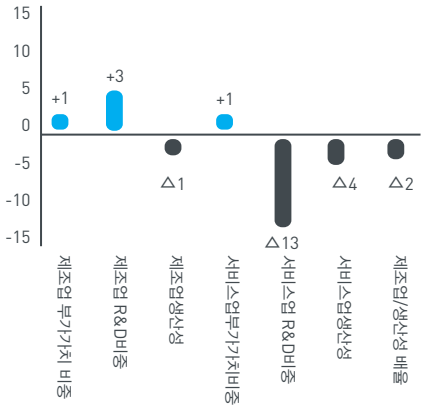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고용 5위(/26개국), 부가가치 9위(/26개국)]은 높지만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의 부가 가치/고용 배율은 21위(/25개국)를 기록하는 등 생산성이 낮다.

제조업의 R&D 투자 비중['99년 1.3%(5위/23개국)→ '07년 2.2%(2위/29개국)]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R&D 투자 비중['99년 0.2%(9위/22개국) → '07년 0.2%(22위/29개국)]은 정체 상태를 보여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배율은 '00년1.5배(26위/28개국)에서 '08년 1.8배(28위)로 확대되었다. 또한, 상품수지는 '00년 3.2%(8위)에서 '09년 6.7%(8위)로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서비스수지는 -0.5%(22위)에서 -2.1%(29위)로 적자폭이 커졌다.

[산업구조 지표]



[최근 10년간 순위 변화]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관련 향후 과제]

-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여 성장의 저변을 확대
  - (창업→성장→확장) 으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
  - 성장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 육성, 대기업과 동반성장 여건 조성
-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업 업종별 맞춤형 정책과제 필요
  -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 지원 강화
  -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바탕으로 산업으로서의 발전 기반 마련
  - 사회복지 관련 기본수요 외 추가수요에 대한 시장 기능 활용

2. 인프라 부문

부존자원은 부족한 편이나
양호한 인적·물적· 금융자본으로 이를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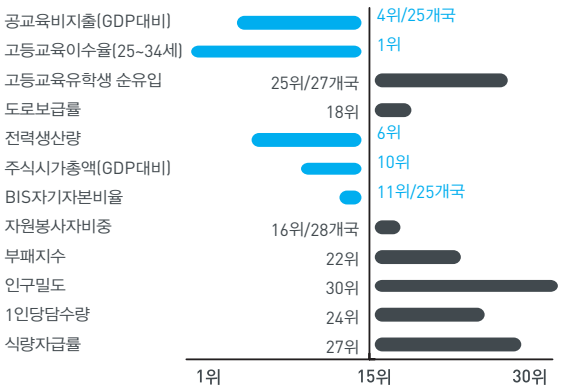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아 인구밀도(30위)는 높으며 연료(원유22위/22개국, 천연가스 20위/23개국), 광물(금 13위/14개국, 철광석 13위/16개국), 수자원(1인당 담수량 13위/16개국) 등 부존자원은 부족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불리한 자연 여건을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

활발한 교육투자[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 4위(/25개국)]와 높은 교육열을 통해 우수한 인적자본(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1위)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25위/27개국)이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고등교육의 질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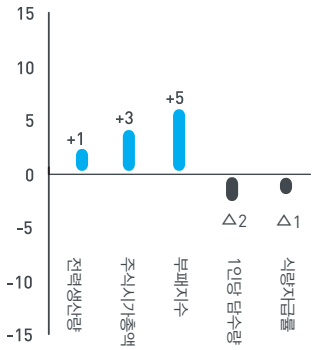
도로(18위), 철도(16위/29개국) 등 물류 SOC와 통신(유선전화 17위), 전력(6위) 등 기본적인 물적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낮은 요금(유선전화하위 1위, 전기하위 1위/23개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효율성도 뛰어나다. 금융자본의 경우도 직 간접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규모(11위)도 상당하며 은행 등 금융 건전성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패(22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자원봉사(16위/28개국) 등 사회공헌 의식 역시 낮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자본의 형성은 더딘 편이다.

[인프라 지표]



[최근 10년간 순위 변화]



*인구밀도 순위는 변동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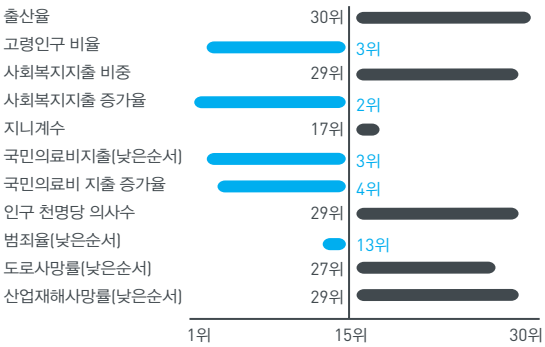
3. 사회 통합 부문

사회복지시스템이 발전 단계이며 안전사고율은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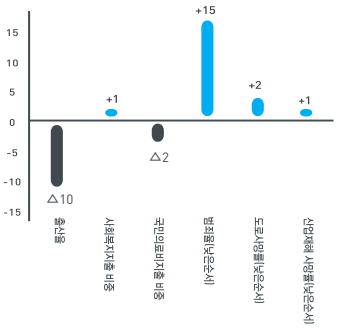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29위), 국민의료비 지출(하위 3위) 등은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출산율(30위)은 낮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증가율(2위), 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3위) 등에서 나타나듯이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7위)와 범죄율(인구 10만명당 수감자 수, 하위 13위)은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나 도로사망률(하위 27위), 산업재해 사망률(하위 29위)과 같은 안전사고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 통합 경쟁력 지표]



[최근 10년간 순위 변화]



*고령인구 비율, 인구 천명당 의사수 순위는 변동없음

[저출산 고령화 관련 향후 과제]

-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을 위하여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
-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 연금 건강보험의 개혁, 복지재정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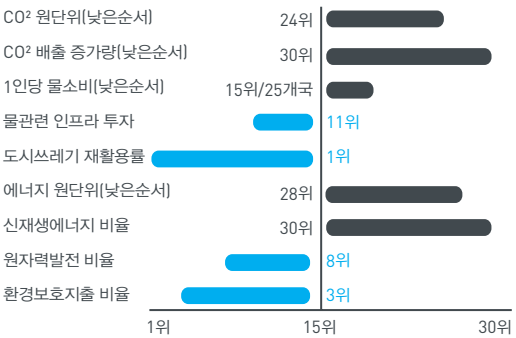
4. 환경 부문

탄소 및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약점이나 환경개선의 잠재력은 큰 편

탄소(24위) 및 에너지(26위) 의존적 경제구조, 낮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30위) 등의 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주로 기인한 것이나 부족한 부존자원 대비 높은 소비량, 녹색산업의 발전이 더딘점도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환경관련 투자(3위)가 많고 환경관련 시민의식(쓰레기 재활용률, 1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환경 개선의 잠재력은 큰 편이다.

[산업구조 경쟁력 지표]



[최근 10년간 순위 변화]

* CO^2 원단위, 에너지 원단위는 한 단계씩 하락
* 신재생에너지 비율, 원자력발전 비율, 환경보호지출 비율 등의 순위는 변동 없음

[녹색성장 관련 향후 과제]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래 배출전망치에 비해 30% 자발적 감축 추진
-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탄소비용화를 통한 외부불경제의 내재화
- 재정, 세제, 금융지원과 함께 녹색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지원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 녹색성장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 육성

참고1. 주요 경쟁력 지표별 순위

1. 성장 동력

1.1. 경제성과

[표 1.1-1] 경제성과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1인당 GDP (PPP기준)	17,078$ 27,169$	25위 23위	3.9만$ 3.5만$
경제성장률 -GDP성장률 1) -잠재성장률 2)	 2.5% 4.6%	 3위 3위/25개국	 0.4% 2.1%
세계시장점유율	2.9%	8위	2.0%

주 | 1) 2007~2009년 평균 2) 2006~2008년 평균, 우리나라는 2003~2010년 기준

[표 1.1-2] 경제규모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총인구	4,875만명	9위	3,978만명
명목GDP (PPP 기준)	8,325억$ 13,244억$	11위 9위	13,733억$ 13,543억$
무역규모	6,866억$	9위	5,215억$

[표 1.1-3] 경제성과 지표 G20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1인당 GDP (PPP 기준)	17,078$ 27,169$	10위 9위	2.2만$ 2.3만$
GDP성장률 1)	2.5%	7위	2.1%
세계시장점유율	2.9%	7위	3.1%

주 | 1) 2007~2009년 평균

[표 1.1-4] 경제규모 지표 G20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총인구	4,875만명	15위	22,214만명
명목GDP (PPP 기준)	8,325억$ 13,244억$	14위 12위	23,563억$ 27,469억$
무역규모	6,866억$	8위	7,989억$

1.2. 요소투입

[표 1.2-1] 노동공급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생산가능인구증가율	0.95%	10위	0.64%
합계 출산율 1)	1.19명	30위	1.71명
외국인 근로자 비율 1)	2.2%	19위/23개국	6.3%
고용률	62.9%	20위	66.6%
(성별)			
- 남성 고용률	73.6%	18위	73.2%
- 여성 고용률	52.2%	25위	60.1%
(연령별)			
- 청년층 고용률	22.9%	26위	40.2%
- 장년층 고용률	73.3%	24위	78.4%
- 고령층 고용률	60.4%	24위	51.7%
실업률(낮은 순서)	3.8%	2위	7.9%
- 청년층 실업률	9.82%	5위	18.05%
- 장기실업자 비율	0.5%	1위	24.7%
경제활동참가율	65.4%	25위	72.3%
(성별)			
- 남성 참가율	76.9%	21위	79.6%
- 여성 참가율	53.9%	27위	65.0%
(연령별)			
- 청년층 참가율	25.4%	29위	48.4%
- 장년층 참가율	76.0%	28위	84.1%
- 고령층 참가율	61.8%	9위	54.4%
평균 근로시간	2255.8시간	1위	1712.1시간

주 | 1) 2008년 기준

[표 1.2-2] 자본공급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 증가율1)	2.0%	21위	3.5%
- GDP대비 비중	27.1%	5위	22.9%
민간비주택고정자본형성			
- 증가율1)	4.9%	12위/23개국	4.3%
- GDP대비 비중	19.2%	3위/21개국	14.8%
민간주택고정자본형성			
- 증가율1)	-5.1%	16위/20개국	-1.9%
- GDP대비 비중	3.5%	15위/20개국	4.7%
총저축률	30.7%	3위/28개국	22.0%
- 가계순저축률	2.9%	17위/25개국	4.5%
- 정부총저축률	10.6%	2위/26개국	2.8%
- 기업총저축률	15.8%	4위/26개국	13.4%

주 | 1) 2006 2008년 평균

1.3. 기술혁신

[표 1.3] 기술혁신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논문게재 건수	38,651건	9위	27,155건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0.36회	28위	0.60회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 3)	32.8%	2위	22.6%
이공계 박사 학위 비율 2)	37.6%	22위/29개국	42.2%
근로자 천명당 연구인력 비율 3)	10.0명	7위	7.6명
GDP대비 R&D 3)	3.37%	4위	1.91%
- 기업부문 R&D 지출 3)	2.54%	4위	1.24%
- 정부부문 R&D 지출 3)	0.41%	2위	0.22%
특허 출원 건수 2)	114,195건	3위/22개국	4,926건
-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 건수 1)	2,656건	1위	230.5건
- R&D 지출규모당 특허 출원 수 1)	3.7건	1위	0.57건
기술무역수지배율 3)	0.43	23위/24개국	1.16
인터넷 이용자 비율	81.6%	10위	71.5%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3)	94.3%	1위	62.5%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	33.8%	6위	25.7%
월간 초고속 인터넷 요금 3)(낮은순서)	18.1$	2위	31.5$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83.6%	1위	40.7%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	81.4%	9위	73.9%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 3)	33.4%	2위	15.8%
정보통신(ICT) 산업 3)			
- ICT 제품 수출 비중 3)	26.2%	1위	8.8%
- ICT 서비스 수출 비중 3)	1.3%	27위/28개국	7.6%

주 | 1) 2007년 기준 2) 2006년 기준 3) 2008년 기준

1.4. 기업환경

[표 1.4-1] 노동 생산성 및 비용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노동생산성	25.1$	28위	43.5$
노동생산성 증가율 1)	3.63%	2위/29개국	0.48%
시간당 노동보수(낮은 순서)	15.0$	5위/20개국	23.6$
시간당 노동보수 증가율 1)(낮은 순서)	5.93%	19위/20개국	4.51%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 1)(낮은 순서)	1.02%	4위	3.13%

주 | 1) 2007~2009년 평균

[표 1.4-2] 자본 생산성 및 비용 지표 OECD 순위(07~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장기 이자율(낮은 순서)	5.36%	22위/28개국	4.73%
단기 이자율(낮은 순서)	4.43%	20위/26개국	4.09%

1.4. 기업환경

[표 1.4-3] 규제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정부의 시장규제 지수 1)	1.50	23위	1.4점
정부지출 비중 1)	30.0%	29위/29개국	43.6%
- 행정·국방·치안 분야 1)	27.6%	2위/27개국	20.6%
- 경제 분야 1)	22.1%	1위/27개국	11.1%
- 보건·사회·문화 분야 1)	27.7%	27위/27개국	51.9%
- 교육 분야 1)	15.9%	6위/27개국	12.8%
공무원 수 비중 2)	5.5%	25위/26개국	14.3%
전자정부 발전지수 3)	0.88	1위	0.70
창업 일수 3)(낮은순서)	14일	18위	13.0일
창업 절차 3)(낮은순서)	8단계	24위	5.8단계
창업 비용 3)(낮은순서)	14.7%	25위	6.2%
폐업 비용 3)(낮은순서)	4%	2위	9.5%
해업 비용(낮은순서)	91주	28위	29.2주

주 | 1) 2008년 기준 2) 2005년 기준 3) 2010년 기준

[표 1.4-4] 조세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법인세율1)(낮은 순서)	22%	12위	24.11%
조세격차2)(낮은 순서)	20.3%	2위	37.4%
국민부담률(낮은 순서)	26.6%	3위	35.3%
- 조세부담률	20.8%	8위/28개국	25.7%
- 사회보장 부담률	5.8%	7위/28개국	9.8%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률	3.3%	14위/26개국	3.4%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	2.56%	2위/26개국	5.9%

주 | 1) 2010년 기준 2) 조세격차 :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

[표 1.4-5] 주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계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임시직 근로자 비율(낮은 순서)	33.6%	30위	13.2%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	2.29	12위	2.11
임시직 고용보호 지수	2.08	14위	2.08
노조조직률	10.3%	28위	29.2%
인구 천명당 파업근로손실 일수1)(낮은 순서)	17.2일	23위/27개국	8.44일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0.49%	25위/26개국	1.37%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0.20%	25위/26개국	0.57%
-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0.29%	24위/27개국	0.78%

주 | 1) 2006 2008년 평균

1.5. 거시환경

[표 1.5] 거시환경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CPI상승률 1)(낮은 순서)	3.3%	24위	2.8%
물가 수준 2)(낮은 순서)	64%	1위	108%
경상수지 1)	1.7%	11위	-1.1%
일반정부 재정			
- 재정수지 1)	2.1%	4위/28개국	-1.8%
- 부채(낮은 순서)	33.2%	4위/27개국	70.9%
- 순이자상환액 3)(낮은 순서)	-4.3%	2위/28개국	2.8%
가계부채/GDP 2)	78.1%	16위/26개국	69.9%
기업채무/GDP 2)	113.1%	16위/25개국	95.5%
외환			
- 총외채(낮은 순서)	4,019억$	7위/27개국	20,640억$
- 총외채/GDP(낮은 순서)	48.3%	5위/27개국	186.3%
- 단기외채/총외채(낮은 순서)	37.3%	16위/27개국	37.1%
- 외환보유액	2,702억$	2위	991억$
- 단기외채/외환보유액(낮은 순서)	55.5%	2위/27개국	1,253%
무역			
- 무역규모 비중	82.5%	7위	64.8%
- 상품수출 비중	43.7%	7위	32.6%
- 상품수입 비중	38.8%	7위	32.2%
- 서비스수출 비중	6.7%	20위	13.8%
- 서비스수입 비중	8.9%	13위	11.2%
- 수입침투율	47.8%	10위	46.4%
- 농업보조 비중	51.7%	3위/29개국	27.0%
투자			
- FDI잠재력 4)	0.38	14위	0.36
- FDI잔액	13.3%	28위	59.4%
- FDI유입액	0.7%	25위	1.4%
- 해외직접투자잔액	13.9%	23위	54.0%
- 해외직접투자유출액	1.3%	16위	2.3%
공적개발원조(ODA)	0.10%	26위/29개국	0.41%

주 | 1) 2007~2009년 평균 2) 2008년 기준 3) 2006~2008년 평균 4) 2004~2006년 기준

1.6. 산업구조

[표 1.6] 산업구조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 고용 비중 1)	71.0%	5위/26개국	58.9%
- 기업체수 비중 1)	98.9%	16위/26개국	98.8%
- 부가가치 비중 1)	45.3%	9위/25개국	44.0%
- 부가가치/고용배율 1)	0.64배	21위/25개국	0.74배
농림업/제조업/서비스업			
- 농림업 부가가치비중	2.5%	10위/28개국	2.2%
- 농림업 고용비중	7.2%	4위/28개국	4.4%
- 제조업 부가가치비중	28.4%	1위/28개국	17.0%
- 제조업 고용비중	17.3%	9위/28개국	15.2%
-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60.0%	25위/28개국	69.3%
- 서비스업 고용비중	67.3%	23위/28개국	71.4%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			
- 제조업 생산성	58,187$	23위/28개국	8.9만$
- 제조업 R&D투자 1)	2.2%	2위/29개국	0.8%
- 상품수지2)	3.3%	8위	-0.3%
- 서비스업 생산성	31,590$	28위/28개국	7.5만$
-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배율	1.8배	1위/28개국	1.2배
- 서비스업 R&D투자 1)	0.2 %	22위/29개국	0.4%
- 서비스수지 2)	-1.9%	29위	2.9%
- 서비스업 FDI비중	43.5%	24위/25개국	64.3%
서비스업구조(전산업대비비중)			
- 도소매 및 음식업 부가가치	11.3%	26위/28개국	14.6%
- 도소매 및 음식업 고용	24.1%	5위/28개국	20.7%
- 교육서비스 부가가치	6.5%	3위/27 개국	4.9%
- 교육서비스 고용	7.4%	7위/28개국	6.7%
- 보건 및 사회복지 부가가치	4.2%	25위/28개국	6.5%
-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3.6%	28위/28개국	10.0%
- 사업서비스 부가가치	14.9%	22위/28개국	19.4%
- 사업서비스 고용	10.2%	22위/28개국	12.1%
- 금융업 부가가치	6.6%	12위/28개국	6.8%
- 금융업 고용	3.5%	8위/28개국	3.3%
자영업자 고용비중(낮은 순서)	31.3%	27위	16.4%
임금근로자 고용비중(낮은 순서)	68.7%	4위	83.6%

주 | 1) 2007년 기준 2) 2007~2009년 평균

2.인프라

2.1. 인적자본

[표 2.1] 주요 인적자본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1)	7.0%	4위/25개국	0.64%
- 정부 부담분 1)	4.2%	19위/27개국	4.9%
- 민간 부담분 1)	2.8%	1위/25개국	0.8%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	7,325$	19위/27개국	8,160$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1)	28%	6위/27개국	25%
고등교육 이수율	37%	5위	28.5%
- 25 34세 고등교육 이수율	58%	1위	35.5%
- 고등교육 이수인구 증가율 2)	5.0%	4위	3.4%
평생학습 참여율 1)	30%	19위/24개국	40.6%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낮은 순서)	81.6%	10위	71.5%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낮은 순서)	18.2명	28위/29개국	13.1명
고등교육 유학생 유입률	1.3%	25위/27개국	6.6%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	3.5%	8위/27개국	3.5%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	-2.3%	25위/27개국	4.0%
PISA - 과학 3)	522.15점	7위	500점
PISA - 수학 3)	547.46점	2위	497.7점

주 | 1) 2007년 기준 2) 1998~2008년 증가율 3) 2006년 기준

2.2. 물적자본

[표 2.2] 주요 물적자본 지표 OECD 순위(2006년 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도로 보급률 1)	1.02	18위	1.68
철도 보급률 2)	0.034	16위/29개국	0.049
유선전화 보급률 3)	39.9%	17위	41.5%
유선전화 요금(월) 2)(낮은 순서)	4.7$	1위	21.3$
전력 생산량 2)	440.5TW/h	6위	217.38TW/h
전기요금(산업용) 2)(낮은 순서)	0.06$	1위/23개국	0.13$

주 | 1) 2006년 기준 2) 2008년 기준 3) 2009년 기준

2.3. 금융자본

[표 2.3] 주요 금융자본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금융규모/건전성			
- 주식 시가총액비중	53.2%	10위	45.2%
- 채권 발행잔액비중 1)	130.4%	6위/29개국	93.8%
- 은행 국내신용비중	112.6%	20위/28개국	143.1%
- 은행 무수익여신비율(낮은 순서)	1.1%	10위/29개국	2.2%
- BIS 자기자본비율	12.3%	11위/29개국	12.4%
- 외환거래량 2)	438억$	11위	1,455억$

주 | 1) 2009년 기준 2) 2010 기준

2.4. 사회적자본

[표 2.4] 주요 사회적자본 지표 OECD순위(2004년 이후)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신뢰			
- 신뢰지수	1.7	13위/19개국	1.6
- 이방인에 대한 신뢰	4.00	15위/17개국	3.42
- 공정성 지수 1)	6.65	4위/18개국	6.06
- 공공기관 신뢰도	2.66	10위/18개국	2.64
- 자원봉사자 비중 2)	21.3%	16위/28개국	23.8%
- 사회지원 비중 2)	41.6%	17위/28개국	46.5%
부패지수 2)(낮은 순서)	5.5	22위	7.0
네트워크			
- 공식적 교류비중	0.11	16위/18개국	0.24
- 비공식적 교류비중	0.40	12위/18개국	0.45

주 | 1) 2005년 기준 2) 2008년 기준

2.5. 부존 자원

[표 2.5] 주요 부존자원 지표 OECD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국토			
- 국토면적 1)	96,920km^2	19위	112만km^2
- 인구밀도 1)(낮은 순서)	490명/km^2	30위	135명/km^2
자원			
- 원유 확인매장량	4,520만배럴	22위/22개국	10,191백만배럴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1,750억ft^3	20위/23개국	21,946억ft^3
- 금 생산량	200kg	13위/14개국	45,814kg
- 은 생산량	1,500kg	14위/17개국	497,800kg
- 철광석 생산량	291,000톤	13위/16개국	27,232천톤
1인당 담수량 2)	1,338m3/명	24위	30,983m2/명
식량자급률 2)	0.5배	27위	0.9배

주 | 1) 2008년 기준 2) 2007년 기준

3. 사회 통합

[표 3] 주요 사회통합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연금지출			
- 공적연금지출비중 [1]	1.3%	29위	6.5%
- 사적연금지출비중	0.8%	14위/24개국	1.7%
- 고령인구 비율(낮은 순서)	10.7%	3위	15.1%
사회복지지출 비중 [2]	7.5%	29위	19.8%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3]	14.8%	2위	6.3%
지니계수 [4](낮은 순서)	0.31	17위	0.31
수명/보건			
- 기대수명(전체)	79.8세	20위	79.4세
- 기대수명(남성)	76.5세	20위	76.7세
- 기대수명(여성)	83.3세	7위	82.2세
- 국민의료비지출비중(낮은순서)	6.5%	3위	9.0%
- 1인당 국민의료비증가율 [5]	11.6%	4위	8.3%
- 1인당 외래진료 횟수	13회	2위/28개국	6.9%
- 인구 1천명당 의사수 [2]	1.7명	29위	3.1명
-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 [2]	7,251회	1위/27개국	2,543회
- 유아사망률	4.7명	20위	4.8명
- 비만율 [2](낮은 순서)	3.5%	2위	15.4%
안전			
- 인구 10만명당 수감자수 [6]	97명	13위	140명
- 도로사망률(낮은 순서)	121명	27위	77명
- 산업재해 사망률 [2](낮은 순서)	19.2명	29위	4.4명

주 | [1] 2005년 기준 [2] 2007년 기준 [3] 2005~2007년 평균 [4] 2004년 기준
[5] 1999~2008년 중 연평균증가율 [6] 2009년 기준

4. 환경

4.1 환경관리

[표 4-1] 주요 노동공급 지표 OECD 순위(2009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총 CO_2 배출량(낮은 순서)	4.98억톤	25위	2.49억톤
1인당 CO_2 배출량(낮은 순서)	10.01톤	22위	9.5톤
1인당 CO_2 배출량 증가율 [1](낮은 순서)	88.6%	30위	8.2%
CO_2 원단위*(낮은 순서)	0.69	24위	0.5
SOx(황산화물) 원단위 [2](낮은 순서)	0.5	19위	1.1
1인당 물소비량 [3](낮은 순서)	610톤	15위/25개국	577.6톤
물관련 인프라 투자 [3]	77.3억$	11위	104.4억$
1인당 도시쓰레기 배출양(낮은 순서)	380kg	5위/28개국	533.6kg
도시쓰레기 재활용률	49%	1위	19%

주 | [1] 1999~2007년 평균 [2] 2005년 기준 [3] 2006년 평균 [4] 2004년 기준
*CO2 원단위 = CO2배출량 / 국민소득(GDP)

4.2 녹색성장

[표 4.2] 주요 녹생성장 지표 OECD 순위(2008년 기준)

1인당 에너지 소비량(낮은 순서)	4.67Toe	20위	4.67Toe
에너지 원단위*(낮은 순서)	0.21	28위	0.164
신재생에너지 비율	1.5%	30위	14.3%
원자력 발전 비율 [1]	34.7%	8위	31.5%
총 재정지출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3.15%	3위	1.78%
GDP대비 환경세 비중	2.52%	10위	2.17%
세수대비 환경세 비중 [2]	10.6%	3위	6.47%5[illegible]

5. 미래도전요인

[표 5] 주요 미래도전요인 지표 OECD순위(2008년 기준)

	현황	우리나라 순위	
합계 출산율	1.19명	30위	1.71명
에너지 원단위(낮은 순서)	0.21	28위	0.164
CO_2 원단위 [1](낮은 순서)	0.69	24위	0.5
원유 확인매장량 [2]	4,520만배럴	22위/22개국	10,191백만배럴
1인당 담수량 [1]	1,338m2/명	24위	30,983m2/명
식량자급률 [1]	0.5배	27위	0.9배

주 | [1] 2009년 평균 [2] 2007년 기준